눈 덮인 숲을 걷고 가족끼리 오밀조밀 텐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트램핑은 겨울캠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다. 텐트, 침낭, 다운재킷 등 필수 아이템을 챙겨가는 것이 겨울 트램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비결이다. 패밀리 캠핑룩을 선보이고 있는 센터폴 전속모델 수현(왼쪽에서 두 번째)과 어린이들. 사진제공 | 센터폴

가족과 떠나는 트램핑 〈트레킹+캠핑〉 패밀리 룩으로 멋내자

겨울캠핑, 즐겁게 해주는 아이템

센터폴·블랙야크 등 키즈아이템 다양
겨울엔 설치 쉽고 가벼운 텐트가 인기
보온력 좋고 바람 막아주는 침낭 필수

캠핑아웃도어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캠핑시장 규모는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만에 무려 30배가 늘어난 수치다. 캠핑인구도 당연히 증가했다. 2010년 60만명 수준에서 2013년 130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최대 3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캠핑시장의 급격한 성장 뒤에는 40대 남성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40대는 20~30대와 달리 '텐트'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하나쯤 갖고 있는 독특한 세대다. 주 5일 근무 등으로 가족과 아웃도어 활동을 할 기회가 늘어난 데다 10년 이상 사회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갖추고 있어 캠핑인구의 허리 층을 형성하고 있다.

요즘에는 패밀리 캠핑으로 '글램핑', '캠프닉'이 각광받고 있다. '글램핑(글래머러스+캠핑)'은 거추장스러운 장비 없이 몸만 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럭셔리 캠핑이다. 장비를 최소화하고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즐기는 캠핑은 '캠프닉(캠핑+피크닉)'이다. '글램핑', '캠프닉'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캠핑 스타일이 있다. 숲 속을 걷는 트레킹과 캠핑을 동시에 즐기는 '트램핑'이다. 차가운 기온이 부담되지만 겨울에만 만끽할 수 있는 자연과 낭만을 위해 겨울캠핑을 떠나는 가족들이 많다.

하지만 겨울캠핑은 보온과 안전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개고생길이 되고 만다. 혹한, 폭설에 대비한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 등산화는 물론 침낭, 겨울용 텐트 등 챙길 것이 만만치 않다. 가족과 함께 하는 트램핑의 재미를 두 배로 늘려주는 아이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겨울캠핑은 설치 쉬운 텐트·강추위 막아줄 침낭이 필수

가족캠핑의 재미 중 하나는 요즘 트렌드인 패밀리룩이다. 가족들끼리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캠퍼들의 부러운 눈길을 사는 재미도 쏠쏠하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이런 추세에 맞춰 패밀리룩을 연출할 수 있는 키즈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센터폴 키즈 라인의 '에델바이스 다운재킷'은 성인재킷 '인터라켓'의 미니미 스타일이다. 캐주얼한 점퍼 스타일로 선명한 컬러감이 세련된 느낌을 준다. 아빠와 아이가 입으면 멋진 패밀리룩 완성. 엄마에게는 슬림하고 여성스러운 핏감을 살린 여성용 '알레 롱 다운재킷'을 추천한다.

블랙야크는 'BK브로드피크' 다운재킷을 내놨다. 올 겨울 블랙야크의 키즈 대표제품이다. 프렌치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성인제품 못지않은 보온성능을 자랑한다. 사파리 형태의 성인용 '펠콘'의 미니미제품이다.

K2의 '마조람' 다운재킷도 키즈용이 나와 있다. 로얄덕다운을 충전해 보온성이 우수하며 라미네이팅 소재 적용으로 방풍성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트램핑에 적합한 텐트제품도 나와 있다. 손이 곱는 추운 겨울에는 텐트치는 작업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센터폴의 '제네바2 팝업텐트'는 원터치 팝업텐트다. 플라이와 이너텐트가 일체형으로 설계돼 별도의 플라이가 필요 없다.

'마스터빔 텐트'는 프랑스 브랜드 밀레가 선보인 '이지 캠핑용' 텐트다. 폴대 대신 반구 형태의 공기주입식 기둥을 사용해 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주입·배출 밸브를 이용해 공기를 넣거나 뺄 수 있다. 텐트 설치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3분이면 완성할 수 있는 텐트다. 해체도 설치만큼이나 간단하다.

겨울밤은 기온이 사정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침낭이 필수다. 사실 겨울캠핑에서는 텐트만큼 중요한 장비가 침낭이다.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제품이 좋지만 역시 보온성이 핵심이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한기를 막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마모트는 침낭의 명문으로 통한다. '감마'는 영하 18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고기능성 제품으로 700필파워 구스다운을 사용했다.

콜맨의 '나누크'도 영하 20도 추위에 버틸 수 있는 뛰어난 보온력을 지닌 침낭 제품이다. '나누크'는 북극곰을 의미한다. 침낭 옆을 이중지퍼 처리해 외부의 한기를 완벽하게 막아준다. 흐트러짐을 방지하는 롤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 수납이 편하다.

▲콜맨 '나누크'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CJ제일제당 'ByO' 론칭…유산균 전문기업 신호탄

차별화된 유산균 개발 박차…라인업 확대
글로벌 유산균 전문기업 육성 초석 다지기

CJ제일제당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유산균 전문 브랜드 'ByO 유산균'을 론칭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미생물 발효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차별화된 유산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 CJ제일제당의 각오다. 브랜드 전략도 통합 브랜드 운영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출시된 김치유산균 건강기능식품 '피부유산균 CJLP-133'도 'ByO 유산균'브랜드에 편입되어 'ByO 피부유산균 CJLP133'으로 변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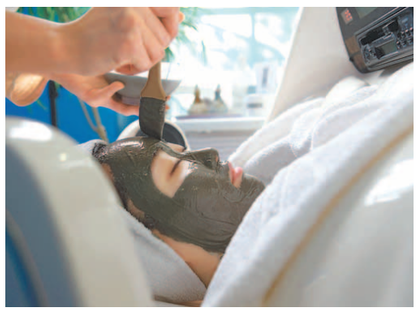
CJ제일제당은 'ByO 유산균' 브랜드 론칭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기능성 유산균 트렌드를 선도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9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신규 기능성이 기대되는 100여개의 후보 균을 확보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유산균 제품을 전략적으로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시 첫해 매출 150억원에서 올해는 3배 이상인 500억원대 브랜드로 육성시키겠다는 목표다.

ByO 피부유산균 CJLP133▲

올해 완공 예정인 CJ ONLYONE R&D센터(통합연구소) 또한 CJ제일제당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과학과 생물자원, 제약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각 분야 노하우를 집약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CJ제일제당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총괄 박상면 부장은 "CJ제일제당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영업·마케팅을 통해 'ByO 유산균'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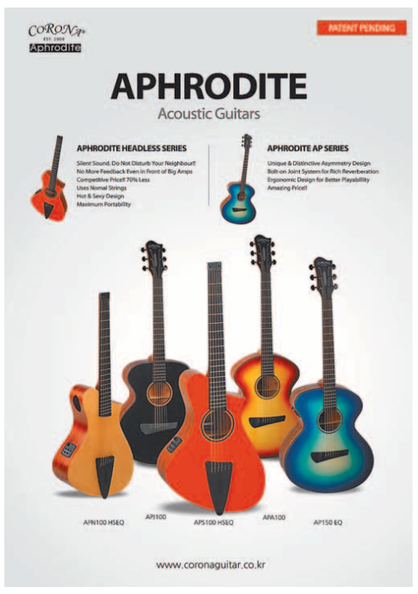


전신 머드팩 받고 힐링하자

한화리조트 대천 '팜므 패키지' 선봬

한화리조트 대천이 겨울철 여성만을 위한 상품을 내놓았다.

한화리조트 대천은 2월26일까지 여성 고객을 위한 힐링여행 상품 팜므(femme) 패키지(사진)를 운영한다. 팜므 패키지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중 객실 1박과 리조트 내 '머드테라피센터'에서 두 사람이 디톡스 전신 머드팩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드테라피센터는 미네랄이 풍부한 보령 머드를 사용해 피부미용을 관리하는 스파로 겨울 찬바람에 거칠어진 피부를 관리하는데 적격이다. 패키지는 정상가 대비 30%가 할인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헤드가 없는 이색 통기타 코로나 '아프로디테' 출시

국내 기타브랜드 코로나가 기존 통기타에서 볼 수 없던 비대칭 바디, 헤드가 없는 모델 등 총 10종을 아프로디테 시리즈(사진)로 출시했다.

이 제품은 마틴이 현재 통기타 모양을 만든 지 100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비대칭 디자인으로 디자인 특허를 출원한 모델이다.

특히 헤드가 없는 모델의 경우 조율기를 바디 뒤쪽에 장착한 특허아이템인 '사운드 블락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통 울림이 작아 밤 시간 집에서도 조용히 연주를 즐길 수 있다.

여행용 기타를 콘셉트로 한 아프로디테 APS 시리즈의 '클램 브릿지'는 조개를 형상화했다. 신제품 코로나 아프로디테 시리즈의 소비자가격은 16만원대부터. 스쿨뮤직 직영점,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 전국 대리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크라운해태제과 초콜릿 속 '애벌레 발견'

크라운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일" 해명
식약처, 원인물 수거·제조공장 등 조사

크라운해태제과의 초콜릿 제품인 미니쉘에서 애벌레가 대량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크라운해태제과가 제조하는 미니쉘에서 육안으로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벌레들이 나왔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크라운해태제과는 제품 제조 과정상의 문제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곳은 경기도 부천의 한 슈퍼마켓이다. 이곳에 비치된 동일한 제품에서도 애벌레 형태의 벌레가 연달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제품 제조 과정상의 문제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유통과정에서 단맛을 좋아하는 성충이 제품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 애벌레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제품은 비닐과 은박소재 등 두 겹으로 포장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 공장과 제품이 판매된 슈퍼마켓이 위치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 원인물 수거 등을 통해 제조와 유통과정의 과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운해태제과는 지난해에도 '유기농 웨하스'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중에 유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11월28일 이후 생산된 '유기농 웨하스'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 원성열 기자

5월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열린다

〈리그 오브 레전드〉

스프링 시즌·IWCI 우승팀 등 6개팀 격돌

라이엇게임즈는 인기 PC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새 글로벌 e스포츠 대회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을 5월7일부터 10일까지 북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MSI에서는 한국과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의 스프링 시즌 우승팀과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 인비테이셔널'(IWCI) 우승팀 등 총 6개팀이 출전해 격돌한다. IWCI의 경우 터키와 독립 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일본, 브라질, 남미, 동남아시아 등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가 새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월 말경 터키에서 열리는 이 대회의 우승팀이 MSI 대회 진출 자격을 얻는다. MSI의 구체적 대회 방식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대회 신설로 기존 5월에 열리던 올스타 대회는 월드 챔피언십 이후인 12월 개최로 변경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노키아와 손잡은 LGU+, 5G 시대 선도할까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공동개발 MOU

LG유플러스는 통신장비업체 노키아와 5세대(G) 네트워크 신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회사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및 신규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MOU의 주요 내용은 LTE-A와 5G 네트워크 기술 공동연구, LTE에서 5G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진화 방안 연구 등이며 차세대 5G 기술 공동 개발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도입을 위해 신기술 검증부터 실험실 테스트 및 상용망 시험까지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연구와 제품 개발 프로젝트 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형태로 추진된다. 김명근 기자

LG유플러스가 5G 네트워크 신기술을 위해 노키아와 손을 잡았다. 19일 서울 남대문로 LG유플러스 사옥에서 MOU를 체결한 김선태 LG유플러스 SD본부장(오른쪽)과 앤드류 코프 노키아코리아 대표.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SKT "VIP고객 무한멤버십"

제휴처 확대 등 혜택 강화

SK텔레콤은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

먼저 고객 등급별 멤버십 할인한도를 상향한다. VIP고객의 경우 할인한도 제한 없이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무한멤버십'이 제공된다. 제휴처도 대폭 늘어난다. 24일부터 파리바게뜨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미니스톱 등 제휴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총 90여개로 늘린다. T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멤버십 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고객 할인한도 상향 및 제휴처 확대를 기념해 24일부터 2월17일까지 '찾아가자 T멤버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T멤버십 고객들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아웃백과 불고기브라더스, 미니스톱, 할리스 등 인기 제휴사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김명근 기자